

## “한인 커뮤니티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할 것”

### 남가주 한인 정치인들 당선 감사예배 드려



남가주 한인 교계 지도자들과 단체장들 한인 정치인 당선자들이 감사예배로 모였다 ©기독일보

지난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영 김 의원과 미셸 박 스틸 의원, 가주 하원 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최석호 의원, 플러턴 시 프레드 정 의원 등 남가주 한인 정치인들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앞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28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된 ‘남가주 한인 정치인 정치인 당선 축하 감사예배’에는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들과 박경재 LA 총영사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이 자리했다.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은 한인 정치인들에게 ‘미국이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고, 한인 정치인들은 그동안 아낌없는 기도와 성원을 보내준 한인 교계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감사예배는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민승기 목사의 사회로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인 박상목 목사가 기도하고 한기홍 목사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지도자가 되자”(시33: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역사적인 자리다. 한인 정치인들의 당선을 기도하면서 오늘을 기다려왔다. 성경적 가치관을 건국의 토대로 삼고 경제 강국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온 미국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립학교 예배 폐지, 낙태와 동성결혼 합법화, 심각한 마약 중독 등으로 타락해 선교가 필요한 나라

로 전락했다”며 “당선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타락하는 오늘의 미국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잡고 회복시키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당선인 답사에서 영 김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한인 커뮤니티의 승리이며 믿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서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당선 소식 후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미국이 변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전했다.

영 김 의원은 “힘든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선거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해주신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

고 합당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셸 스틸 박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처음 개표 상황에서 10% 차이로 지고 있어서 4번의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 은퇴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마침내 당선되게 됐다”며 “감사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성원과 도움에 열심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명의 한인들이 출마해 7명이나 당선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높은 당선 확률의 비결은 하나

님을 경외하는 목사님들과 한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했다.

최 의원은 “당선 축하 파티가 아니라 당선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이 갖는 독특함이자 힘”이라며 “미국의 한인들이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통령을 배출하는 날을 꿈꾸자”고 독려했다.

5세 때 부모와 함께 이민 와 이번 선거에서 플러턴 시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프레드 정 의원은 “매일 밤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한인 커뮤니티와 플러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기도를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미주 청소년, 강한 믿음의 세대로 세운다

### 2020 온라인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12월 21일-23일(수)까지 개최

매년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왔던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이하 YHC)가 올해는 펜데믹으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오는 1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진행되는 YHC는 “확신(Steadfast)” (이사야 54:10)이라는 주제로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순 무브먼트(KCCC)에서 주관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 강사로는 오운태 목사(순무브먼트대표), 대니 한 목사(MTG Church), 김대훈 목사(New Beginnings Church)가 참여하며, 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LGBTQ, 순결, 사회정의, 중독 등에 관한 10여개의 주제강의(Elective Seminar)를 전문 강사들이 ZOOM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

한 소울 케어(Soulcare) 시간을 통해 개인적 고민을 전문가들과 일대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오운태 목사는 “온라인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만 이 시대 청소년들에 맞게 다양한 온라인 게임과 친교시간도 진행되며, 짧은 시간 함께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과 스몰그룹(교회별, 그룹별) 미팅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길어지는 펜데믹 가운데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다양한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악한 세대가운데서 거룩함을 무기로 세상을 변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

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기성세대보다 더 강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YHC 등록은 웹사이트 youth-highercalling.org를 통해 개인과 단

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일인당 20불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전세계 참여가 가능하다.

컨퍼런스 준비위원회는 “많은 교회들이 펜데믹 상황으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데 올해 YHC를 통해 교회들이 연합하고 청

소년들에게 더 넓은 믿음의 장을 열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월 11일까지 등록하는 학생들은 집회의 공식 티셔츠와 선물이 담긴 웰컴 패키지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10-8248

김동욱 기자

## “힘들수록 나누고 베푸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의무죠”



교회를 찾은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추수감사절 선물 박스를 전달하는 나성한미교회 성도들과 아구아비바 히스패닉 교회 성도들

### 나성한미교회 제29회 러브 엘몬테 개최

매년 LA 동부, 엘몬테 지역의 히스패닉 주민들을 초청해 “러브 엘몬테(Love El Monte)”란 이름으로 땡스기빙과 문화나눔축제를 가져온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가 펜데믹 기간에도 이웃 사랑을 이어갔다.

지난 22일 교회를 찾은 히스패닉 주민들은 나성한미교회 성도들과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는 히스패닉 교회인 아구아비바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추수감사절 선물 박스를 받으며 기뻐했다.

교회 성도들은 주차장 입구에서 출입하는 차량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며 드라이브 쓰루로 추수감사절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러브 엘몬테는 나성한미교회가 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 행사로 1992년부터 시작해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이웃을 교회로 초청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다.

러브 엘몬테는 긴 역사 만큼 히스패닉 주민들을 위해 음식과 선물 나누는 LA 동부 지역 추수감사절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식품품들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신용환 목사는 “감사는 표현되는 것이며 나눔으로 흘러가야 한다며 힘들수록 나누고 베푸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i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i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 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짧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전문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사랑의 나눔 캠페인’ 실시



왼쪽부터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합성주 목사, 심현석 목사, 노경주 전도사, 남성수 담임목사, 조진희 집사(봉사위원장), 이승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팬데믹과 연말을 맞이하여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11월 15일(주일)부터 12월 6일(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캠페인 특별 헌금’ 기간을 통해 모금된 기금 전액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 현장, 교회가 속한 지역의 웨스트민스터 경찰국(Westminster Police Department)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사용할 예정이다.

남성수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는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이라며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 한인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캠페인’은 오렌지 카운티한인교회 주차장에서 오는

12월 19일(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쌀과 라면, 마스크와 손 세제제 등이 들어있는 200여 개의 ‘사랑의 패키지’를 차량 한 대 당 1개씩,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달할 예정이다.

‘사랑의 나눔 캠페인’ 행사는 준비한 사랑의 물품 패키지가 모두 소진 되는대로 마감될 예정이다.

문의 : (714) 893-1652

김동욱 기자

# “지나보니 어두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어요”



2020 온라인 밀알의 밤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한동대 이지선 교수

장애인 장학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0 온라인 밀알의 밤”이 지난 26일 “감사함으로(시편 136 편)”란 주제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세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지선 교수는 “지난 2000 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피부의 55%를 잃은 전신화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파스한 위로가 담긴 카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새 힘을 얻었다”며 “돌이켜보니 그 고난의 시간이 영영 못 빠져나올 ‘동굴’이 아니라 어둠 너머로 새로운 서광이 비추지는 ‘터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교수는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극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어려울 때 일수록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는 때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 가 아님을 알려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밀알의 밤은 이종희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의 사화로, 김에스터 자매가 인도하는 ‘로컬찬양팀’의 오픈링 찬양, 남가주밀알수어찬양단의 <감사함으로> 수어찬양,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한동대 사회 복지학부 교수의 메시지, 밀알장학생 ‘Paul Shin’ 형제 가족의 인

터뷰 상영, 로컬찬양팀의 클로징 찬양, 통성기도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척추이분증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밀알장학생 폴신 형제(Santa Monica College 재학)는 가족 인터뷰에서 “밀알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며 “장차 정치외교학을 전공해 정부 기관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종희 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집회가 아닌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어 조금 아쉬웠지만, 게스트들의 뜨거운 감사의 메시지와 찬양, 영상을 통해 올 한 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며 “특별히 ‘남가주밀알 수어찬양단’의 <감사함으로> 공연은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로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단장은 이어 “2020 온라인 밀알의 밤으로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1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밀알 선교단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고국에서 새 희망을 가꾸려 합니다!”



해외 한인 구조단의 귀국지원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김동균 씨 © 월드쉐어

30여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행을 준비하는 김동균(66세)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생활은 늘 넉넉하지 못했다. 영주권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사람의 사기로 불법 체류자가 되어 버렸다. 불법 체류자의 삶은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지만 가리지 않고 닦이는 대로 일했다.

열심히 살던 그에게 사고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다리에 약간의 부상을 당한 것인줄로 알고 대수롭지 않

게 여겼는데 악성으로 발전되어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 건강한 팔다리로 일을 해도 힘들었던 미국 생활은 더욱 쉽지 않았다. 그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속임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의 도움을 잇을 수가 없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는 임창수 목사님과 미국 생활 초창기에 몸과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주었던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을 잇을 수 없다고.

그러던 중 해외 한인 구조단(단장 권태일 목사)이 해외 한인들을 구조한다는 신문 기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한인구조단의 미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월드쉐어 USA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불법체류나 사업 실패, 생활고, 도박, 중독, 질병 등으로 해외에서 노숙하거나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한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주한인구조는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가 담당한다. 강목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주에서도 한인들의 실질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구조 및 귀국 문의가 늘고 있다”며 “고국에서 새 희망을 품고자 하는 한인분들은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재외한인구조단을 통해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귀국 항공료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적응 훈련과 기술훈련 등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재활훈련도 받을 수 있다. 구조에 필요한 기금은 월드쉐어에서 지원하며, 구조 요청은 전화 323-578-7933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의연하다

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성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전도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로교회), 신정민목사(복음전도 대표), 유관지목사(동일로교회),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판권자

\* 영의 복음 아래 연합자로 주홍하실 수 있습니다. \$20/판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꿈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영)과 속편 ‘빛은 그늘 의연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화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기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율법이다.

\* 체크오더양: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온북점 GBM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4

“교수와 선교사 사이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학기말 시험 기간에 돌입했다. 도서관의 학생들 공부 열기가 뜨겁다. 학교 도서관은 어느 때는 밤 11시까지 개장한다. 이렇게 학기말 시험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개장한다. 도서관 좌석은 약 60석이다. 거의 가득 차서 좋은 학업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교수 중에 한 분이 긴급 교무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학교엔 3가지의 선교사 부부가 있다. 필자의 전임인 임 선교사 가정과 히브리어와 헬라어 강의를 하는 한 선교사와 교회음악과 합창지휘를 가르치는 박 선교사 부부 가정 그리고 필자 가정이다. 한 선교사는 1,2학년은 히브리어 그리고 3,4학년은 헬라어를 가르친다.

인해 또 한 번 낙제를 하면 그 학생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안타까웠다. 필자도 신학교 시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히브리어였다.

그 학생을 사무실로 불러 상담을 했다. 다른 과목은 다 성적이 좋고 예배 때 기도와 말씀도 잘 전하고 매사에 모범적이고 친구 관계도 다 좋은데 히브리어만 점수가 뒤떨어진 것이 이상하다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말문을 열었다. 시험 준비도 열심히 잘 했는데 막상 히브리어 시험지만 보면 머리가 뒤엉킨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너무 안타까웠다. 필자는 그에게 한 주간 시작을 더 줄 테니 이번엔 시험에 출제된 단어와 문장들을 10번씩 쓰고 10번씩 읽어 오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하루 10분씩 세 번 기도 할 테니까 편하게 쓰고 읽으라 했다.

긴급상황이 생겼다. 히브리어 반에서 그만 두 학생이 낙제가 되어 교실 복도 게시판에 공고가 된 것이다. 두 학생 중 한 명은 1학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가 있으나 다른 한 명은 이미 3학년인데 작년엔 히브리어 낙제를 받아 올해 다시 도전한 학생이다. 그런데 또 낙제를 한 것이다. 담당교수인 한 선교사님 정말 대책 같은 분이시다. 그분은 매주 한 번씩 강의 때마다 전 주에 배웠던 부분에서 강의 시작 전에 20~30문제로 퀴즈를 봐서 그 점수 합산으로 학기말 점수를 내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시험을 보는 중에 히브리어는 이미 점수가 다 집계되어 두 명이 낙제 공고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한 학생 문제로 교무회의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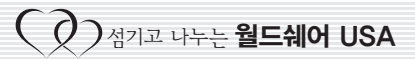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지금 도서관 한 구석에서 그는 내준 숙제를 하며 또 다른 과목 시험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물론 히브리어 퀴즈 7번을 모두 100점 받은 학생들도 2명이 있다.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한 후 좋은 성적의 열매를 맺어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런 그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계속하여 낙제 한 그 학생이 계속 머리에 남아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 아! 하나님! 억지인지 않지만 이 아이 떨어지지 않게 길을 열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난다.

담당교수인 한 선교사는 시험 점수는 봐주는 것 없이 규칙대로 처리했다는 의견이고 교수가 아닌 우리 다른 선교사들은 어떻게 낙제를 면하게 해 줄 방법이 없는가를 말하면서 서로 의견 같듯이 생겼다. 서로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다 마지막에 학장인 필자에게 모든 결정을 넘기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했다.

이렇게 우리 학교의 12월이 시작되고 있다. 2주간의 시험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한 주간은 영성 훈련으로 말씀사경회가 있다. 한국으로 치면 학생 부흥회이다.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학교의 학기말 모습을 그렸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9



“바울의 첫 설교를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설교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Antioch of Pisidia)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모델이 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입니다. 지금은 터키에 있는 작은 도시 알라츠이지만 바울시대에는 지중해 해양 교통의 중심지였고 갈라디아지역의 군사 중심의 대도시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험산준령을 넘어 이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은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도시로 알려집니다. 바울은 복음이 확장되는데 요충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흡수와 전파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후 비시디아 안디옥은 복음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도 바울도 애착을 갖고 다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16개의 안디옥들은 각 지역의 중심지로 변장하는 도시였다고 밝힙니다. 이 16개의 안디옥 중에 수리아 안디옥(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미시간대학교 고고학 팀의 발굴에 의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형적으로 거칠고 험준했고, 거주민들도 호전적이어서 외침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정복하여 이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에 정복되기 전에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속한 도시로 이해되지만 고대 지리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는 비시디아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비시디아 근방의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와 브루기아 경계선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산지에 사는 부족들의 공격을 막는 방패와 같은 도시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명명된 것은 BC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부하 장군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주전 312-280년)가 셀류쿠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는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도시들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로마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비시디아 발빌리아 지역의 원주민의 통제를 위해 여러 군사 식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콜로니아 가이사라(Colonia Caesarea)'로도 명명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런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 로마를 지배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한층 더 발전합니다. 사도바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방의 수도로서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타민족들도 대거 이동하여 거주하는 활기찬 대도시였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신학 교수를 지낸 폴힐 (John Polhill) 박사는 BC 3세기경 헬라 지경에는 16개의 안디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로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초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로마화 하기 위하여 퇴역군인의 주거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공적을 기리는 도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비시디아 안디

옥에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군대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던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땅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면서 대대적인 정착사업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로마시대 유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로마 시대의 유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전, 야외극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에 지은 사도 바울 기념교회 그리고 목욕탕 등의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선교 센터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God-fearer)들을 대상으로 첫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그대로 수용했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약을 개관하며 복음을 증거 합니다. 이 설교는 비슷한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행7장의 스테반 설교와 대비되는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에는 바울의 선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구약 하박국1:5를 인용하며 경건로 마무리하면서 구약을 선교적 해석학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면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했던 말씀을 선교적으로 재해석하여 구원의 초청 메시지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역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바울이 찾은 비시디아 안디옥은 잠재력 가득한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선교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회중들을 선교적 메시지로 초청합니다. 헬라와 로마의 황제들이 가꾼 도시들이 복음의 전초 기지로 활용됩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강하고 섬세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최첨단 기지에서 뛰어드는 코어와 현대 빈곤 해결을 바탕으로 후원합니다.



# “노숙 사역은 이제 부터가 진짜예요”

## [인터뷰] 아버지밥상교회 무디 고 목사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교회 사역이 눈에 띄게 줄어든 요즘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져 분주한 곳이 있다. 바로 노숙자들을 돌보는 아버지 밥상교회(Father's Table Mission)다.

팬데믹 기간 방역조치로 교계와 사회 많은 부분에서 활동이 축소되고 제한됐지만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엘에이의 노숙자들로 인해 아버지 밥상교회 무디 고牧사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부터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에서 도넛 수천 개를 픽업하고, 뜨거운 치킨 수프를 끓여 300여 명의 엘에이 다운타운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대접한다.

다 낡아 허름해진 옷을 입은 노숙자들은 이곳에서 새벽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옷과 양말을 얻는다. 거리를 떠돌며 찢긴 상처들, 이것저것 상한 음식을 먹다가 생긴 배탈도 이곳에서 해결한다. 노숙자들에게 아버지밥상교회는 눈치보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며 상처를 싸매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와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더욱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노숙자 된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아버지밥상교회에는 기쁜 소식이 있다. 마약과 알콜 중독으로 길거리를 헤매다 교회에서 생활하며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20여 명의 노숙자들 가운데 10명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 고 목사는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들이 이제는 다른 노숙자들을 섬기고 아버지 밥상교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다.

“중독에서 치유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데 말씀과 기도, 예배 훈련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직업을 구하고 삶의 안정을 찾으면서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는 정말 마음에 감격이 밀려오거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고 목사는 정작 ‘노숙 사역은 이제 부터가 진짜’라고 말한다. 야외 노숙이 어려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4개월 동안 노숙자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월동장비 마련에 여념이 없다. 쉼터에 거하지 못하는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개인 텐트, 침낭, 겨울 잠바, 전기 히터, 비상약 구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잦은 고장으로 사역자들의 발을 묶어 놓는 노후된 차량도 교체가 필요하다.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진행되는 고 목사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가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일



아버지밥상교회 무디 고 목사는 요즘 노숙생활을 마치고 제2의 삶을 시작하는 형제들로 즐겁다.

### 코로나19에 넘쳐나는 노숙자들 외면할 수 없어 노숙자들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큰 감격 추위 견딜 수 있는 월동장비 마련, 노후차량 교체 시급

어날 빛을 발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며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노숙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밥상교회는 현재 10명이 봉사자가 돌아가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역을 위해 5명에서 10명 정도의 봉사자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아버

지 밥상교회 봉사나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전화 213-364-7289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의 아침은 언제나 엘에이 다운타운의 노숙자들로 북적인다. 대중집회가 제한되는 팬데믹 기간임에도 노숙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아버지 밥상교회의 사역은 경찰의 허가를 받고 진행된다.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진행되는 아버지 밥상교회 길거리 전도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프랭클린 그래함 “코로나 기간,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영접”

빌리 그래함 복음주의 협회(BEGA) 회장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며 “복음은 2020년 강력하게 발전했다”고 말했다고 2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그래함 목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9년 130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2020년에는 170만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서 “숫자에 대한 질문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성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프랭클린 그래함도 아니고 그 어떤 기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팬데믹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라는 부름은 항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생 동안 팬데믹을 경험 한 적이 없다. 전 세계는 이전에 봉쇄된 적이 없었다”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전염병이 그것을 막지



빌리 그래함 복음주의 협회(BEGA) 소속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다. ©BEGA

못했다”고 말했다.

BGEA는 최초로 24시간 내내 가스펠 콜 핫라인(Gospel call hotline)을 운영하고 텔레비전 광고를 구매했다. 그래함 목사는 60초 광고를 통해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 영혼의 상태를 묻고 빠르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 복음 전파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래함 목사는 말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전에는 (복음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듣고 있다.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낸 그 어느 해 중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신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느끼면서 변화한 것은 나머지 삶에 대한 태

도”라고 했다. 그래함 목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황 상태였으며 이러한 두려움은 희망의 메시지를 갈망하게 만든다고.

그는 “저는 그들이 복음을 기꺼이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그들에게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열망

한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그들은 듣고 싶어한다”라고 말했다.

BGEA의 전도 숫자는 정규 교회 출석률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바나 리서치는 기독교인 5명 중 1명이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로 현장예배 혹은 온라인으로 교회를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래함 목사는 교회 출석률 감소가 이미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앙을 덜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인은 떠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는다고 그는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매우 잘 해왔고 충만하다. 좌석이 꽉 차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들보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교인들이 더 많다”라고 말했다.

많은 교회가 폐쇄된 상태에서 BGEA와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은 복음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제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래함 목사는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 美법원 “뉴욕주 北자산 정보 공개하라”

## 웬비어 부모 청구... 회수 가능할지 여부 주목

북한에 억류됐다 훈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웬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VOA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웬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웬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웬비어 씨는 같은 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웬비어 씨 측이 필



오토 웬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웬비어(오른쪽)와 아내 신디 웬비어 씨. ©뉴시스

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다.

VOA는 “종합해 보면 웬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것”이라 전했다.

다만 하월 판사는 이번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웬비어 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웬

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주의 재정을 관리하고, 뉴욕시를 포함한 주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뉴욕주

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웬비어 씨 측이 구체적으로 뉴욕주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웬비어 씨 측의 법적 조치가 미청구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웬비어 씨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곳곳에 흩어진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유진 기자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 “LGBT 티셔츠 입지 않았다고 스타벅스에서 해고”



©Pixabay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던 한 기독교 여성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성소수자(LGBT)를 상징하는 ‘프라이드(Pride) 티셔츠를 착용하지 않자 회사 측에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벤티 프레제(Betsy Fresse)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뉴저지 호보콘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했다. 당시 그녀의 매니저는 벤티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용했지만 이후 글렌릿지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으로 전근되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문에 따르면 벤티는 지난 2019년 6월 회의 중 매장 관리자 사무실 바닥에서 스타벅스 프라이드 티셔츠 한 장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이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관리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지 한 달 후 지역 관리자는 그녀의 고용이 종료되었다고 벤티에게 통보했다고 뉴욕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송문에 제기된 스타벅스의 해고 통지에 따르면 프레제는 회사의 핵심 가치(core values)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녀는 티셔츠를 받았을 때 동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티셔츠) 착용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프레제는 자신이 불법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스타벅스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지켜온 종교적 신념 수용을 막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과 더불어 배임,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프레제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에 “우리는 프레제의 주장을 잘 알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복색 앞치마를 제외하고 우리의 복장 규정과 관련해, 복장 규정의 어떤 부분도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물품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제의 소송문에 따르면 “해고되기 전, 프라이드 티셔츠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스타벅스의 윤리 및 규정 준수 담당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성소수자(LGBT) 상징 티셔츠를 입는 것에 대해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몇 주 후인 2019년 8월 22일, 프레제는 “그녀의 처신이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송문에 따르면 프레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며 기독교인은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CP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교인 수 급감한 美 성공회, 20년 내 소멸할 수도

## 20대 주요 개신교단 중 평균연령 가장 높아

성공회가 교인 수 급감으로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개신교단 내 교회 출석률과 교인 수가 지난 10년 동안 현저히 감소했다. 미국에서 기독교 교세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1966년, 성공회 교인은 약 360만 명이였다. 그런데 성공회 총회 사무국은 2018년 교단에 가입된 교인 수가 167만 6,00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2009년 성공회 정기 예배 참석자는 약 72만 4000만 명이였으며, 2019년 이 수치는 주일 평균 579,000명으로 10년간 거의 25% 줄었다.

성공회 사제인 드와이트 사일리(Dwight Zscheile) 목사는 처치리더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그림은 끔찍하다. 이대로라면 2050년쯤에는 교단 전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현금 약정액은 늘었지만, 현금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사실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추세는 아니”라고 했다.

라이언 버지(Lyan Burge) 박사의 인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 성공회 교인 수의 약 55%가 60세 이상이며, 이는 미국 내 20대 종교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이다.

버지 박사는 최근 ‘홀리포스트’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성공회가 2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매우 줄어들 것이다. 명맥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버지 박사는 2040년이 되면 교단 가입



흑인 최초로 미국성공회 주교에 오른 마이클 커리 주교의 취임예배가 워싱턴국립성당에서 열렸다. ©워싱턴국립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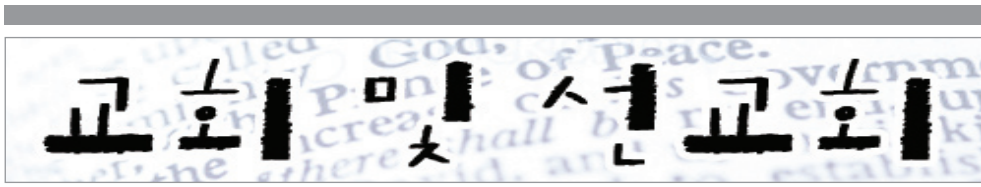
률이 최근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추산 중이다. 또 성공회 교인 14%만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교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성공회는 동북부, 서해안, 러스트벨트 등 자유주의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가지화된 지역이 세속화되면서 크게 공동화됐다. 그 하락세가 이와 같이 가파른 또 다른 이유는 교단의 진보적 신학적 방향, 특히 결혼과 성유리 때문이다.

2003년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 주교의 성직 임명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성직자들이 이에 대한 저항으로 교단을 떠나 새로운 교회 구조 아래 성공회 교회를 형성하게 했다는 점에서 교단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캐논 닐 엘리엇(Neil Elliot) 신부는 캐나다 성공회 총회 전 2019년 11월 발표에서 교단이 평균 연령과 달리 2040년까지 사실상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교회로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우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0.1만 2세대를 섬기며, 이만 1가정을 치유하며, 신교령을 순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우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성인 E모임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듬예배(델리안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묘노키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목)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안 한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EM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현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1954 Hensel St., Northridge, CA 91326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T. (818)935-5887 T. (818)937-38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교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 순교자의 소리, “북한에 성경 실은 풍선 보낸 목회자 처벌 위기”...기도 요청

국제 선교 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한국 VOM)'가 북한에 성경책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경찰에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한국 경찰은 15년간 성경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보낸 에릭 폴리(Eric Foley) 한국 VOM 설립 목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폴리 목사가 예상하는 혐의 중 첫 번째는 '남북교류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판매하는 모든 것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풍선을 띄우는 활동이 한국에 국가적 위협을 초래했다는 혐의이며, 마지막은 '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위반'일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6월 북한 김정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단속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여정은 한국이 이 같은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 전단 단체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설명했다.

또 신문은 미션 네트워크 뉴스(MNN) 보도 내용을 인용, 정부는 경찰에 한국 VOM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폴리 대표가 풍선을 보내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막았으며, 그의 집과 사무실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통일부는 올 여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탈북자를 지원하는 89개 단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한국 VOM을 포함,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큰샘(대표 박정오) 등이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보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성경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한국VOM

도했다. 지난 7월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비정부가 자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폴리 목사는 MNN에 "우리는 성경만을 보낸다"며 탈북자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북 전단 살포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독교 단체와 정치적 단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언한다.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기부금 횡령이나 사기 혐의는 없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존중을 보였고 현재의 회계 관행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폴리는 또 "이 시점까지 합법이었던 성경 풍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앞으로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 까지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15년 간 우리는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는 풍선을 발송할 때 경찰, 군대 심지어 정보 기관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폴리는 한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 ACN, 기독교인 박해 연구 “매일 8명의 기독교인 살해 돼”



코로나19 기간 동안 ACN의 도움을 받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Aid to the Church in Need

카톨릭 자선단체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의 최근 연구에서 오늘날 가장 만연한 기독교인 박해의 형태는 "부당한 구금(unjust detention)"으로 밝혀졌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지난 25일 ACN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는 부당한 체포와 납치는 가장 만연해 있는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박해의 형태이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납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강간과 기타 형태의 성폭력의 이중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오픈 도어즈(Open Doors)가 올해 초에 발표한 '2020 세계 감시 목록(2020 World Watch List)'를 근거로 인용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기독교 박해 50개국에서는 매달 평균 309명의 기독교인이 억울하게 수감되며, 2019년에만 1052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됐다.

이 밖에도, 매일 8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매주 182개의 교회나 기독교 건물들이 습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매우 높은 박해 수준'으로 관측된 나라는 상위 50개국 중 올해는 45개국으로, 작년보다 5개나 더 증가했다.

ACN은 또 파키스탄에서 무슬림 남성들이 미성년 기독교 소녀를 납치해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켜 결혼하는 사건

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납치된 14살의 마리아 사바즈(Maira Shahbaz)의 경우, 강제 개종과 결혼 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하는 장면까지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탈출한 이후에 그녀는 가족과 숨어 지낸다 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아시아 비비(Asia Bibi)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최초의 기독교 여성으로서 기조 연설을 맡았다.

비비는 사바즈와 같은 소녀들이 불법 구금과 납치에 있어 "쉬운 표적"이며 "기독교 신앙은 사회에서 그들을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 "법정은 그들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비비는 현재 기독교인의 부당한 구금을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가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나는 이 시련에서 살아남게 되면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비는 "이제 세상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었다. 권력에 진실을 말할 때다. 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신앙인들을 구속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 한국교회 무시한 것”



용역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뒤 집기들이 널부러져 있는 사랑제일교회 모습. ©교회연론회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26일 새벽 벌어진 사랑제일교회 폭력 사태에 대한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6일 밤 1시 재개발조합에서 보낸 용역들 수백 명에 의해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용역들은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기왓장 등을 아래 교회 주차장과 건물에 집어던져 교회 기물들을 파손시켰고, 중장비를 동원해 교회 진입로에 주차한 차량들을 파손했으며, 막아선 교인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특히 화염병이 떨어져 교회 곳곳이 불에 탔다.

교회연론회는 “그 동안 교회와 조합 측은 협상과 합의에 의해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악수들을 끼고 조합 측이 강제적·폭력적인 명도(明渡)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돼 서울시가 2 단계로 감염병 예방 수위를 높인 가운데, 조합 측이 용역 수백 명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국민 건강을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교회는 지체로써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모든 교회들이 아픔을 겪는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독교

를 무시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폭력과 감염병 위반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조합 측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며,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을 신의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주동자들을 엄정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용역 수백 명을 동원한 조합과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독교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하여,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자들을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재개발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 피해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는 한국교회를 무시한 불법·탈법·폭력 사태로, 무엇보다 조합 측이 교회와의 원만한 타결보다 강제와 무력에 의한 명도 방법을 버리지 않을 때, 지난 2009년 일어났던 용산 제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과 같은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따라서 지역 재개발을 통해 일방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 불행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우려했다.

송경호 기자

## 분당우리교회

### “분립개척 함께할 담임목사 30명 선출”



이찬수 목사가 영상에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에서 최근 ‘일만성도 파송운동’ 1차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분립개척을 함께할 30명의 담임목사님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찬수 목사가 진행한 중간보고는 30개 분립개척 교회 담임목사(내부 15인, 외부 15인) 청빙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온라인 진행했다.

이찬수 목사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에서 “분립 개척할 30개 중 15개 교회 목회자를 외부에서 청빙하는 이유는, 상징적으로라도 이 일이 분당우리교회의 이익이나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그러한 하나의 애씀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내부 교역자들 중 청빙한 15명의 경우에는 1년간 분당우리교회 전 교역자들이 5차례에 걸쳐 청빙 투표를 진행해 선발했다.

이 목사는 “외부 15인 담임목사는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 외부 목회자 6분을 멘토로 모시고, 저희 내부에서 연장자 순으로 헬퍼 목회자 6명과 장로 3명이 함께 청빙위원으로 섬겼다”며 “이 과정은 목회자 학교처럼 진행됐다. 7월 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총 4차례 세미나를 거쳤고, 멘토 분들이 후보자들과 모두 일대일 면담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다소 당황했던 것은, 후보자들 중 20여분을 선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멘토

분들이 너무 신중하게 선발하셔서 8명만 뽑아주셨다”며 “그래서 내부 목회자들 중 8명을 연장자 순으로 2차 청빙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추가로 일곱 분을 선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찬수 목사는 “선발 기준은 단 하나였다. 목회자들이 배경과 교단을 뒤로 하고,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을 눈물로 섬기고 사랑하고 목양해주시 분들”이라며 “선출된 분들에게 다시 당부드렸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이전까지 어려웠던지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죽을 각오를 해 달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탁월한 분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훨씬 탁월한 분들이 많지만, 지금 분당우리교회 상황에서 성도님들을 가장 잘 섬기실 분이냐는 확신이 있는 15명을 선발한 것”이라며 말했다. 당회 결정에 의해 이들 30명은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함께할 목회자들로 최종 결정됐다.

그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교구 성도님들께 3가지 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했다”며 “30개 교구로 시작되는 임시 교구가 한 교회가 될텐데, 꼭 따라가셔도 된다. 그런가 하면 지역 작은교회로 가서도 되고, 분당우리교회에 남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오전 8:00  
오전 9:45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질모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대(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정예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대(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병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오후 5:30(토)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오후 5:30(토)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음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하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am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 오후 7시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주요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예배  
FAM에 오전 11:30(청년) 예배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강

###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 팬데믹, 팬복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님과 사모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배당 문은 굳게 닫혀있고 교회 마당에서 닫힌 예배당 안을 문 틈으로 들여다보시며, 어쩔 줄 몰라하시는 것을 부목사님이 보시고 예배당 뒷자리로 모셨습니다. 예배 후 안부를 여쭙었더니 지난 9개월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추수감사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드디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예배드리는 내내 눈물을 닦고 계셨다고 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드시라며 빵 한 보따리를 건네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서 저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줌 미팅, 베델 카톡 채널. 이런 단어들에 여전히 낯선 어르신들이 참 많은 가운데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도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더 눈높이를 그분들에게 맞춰서 교회소식을 전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들어야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00만을 육박하고 미국은 매일 1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확진자가 되고 있는 이때,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은 복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는 어찌면 복음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난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보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팬복음의 확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2월 중순부터 코로나 백신이 출시된다는 질병통제센터 디렉터 레드필드(Redfield)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면 양로원과 건강상 위기에 놓인 사람들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내년 6월쯤이면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크리스마스는 코로나 걱정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도 하고,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서로에 대한 불편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반가운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허그도 못하고 악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색하다 못해 슬퍼지기까지 하는 요즘, 백신이 곧 출시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본당에서 추수감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연로하신 은퇴 목사

##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갔을 때, 조금 의아하게 느꼈던 것은, 모든 집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의 거실 창이 아주 넓은 통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들의 거실 생활이 환히 보여 지는 것입니다.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멋진 이태리 풍경이 환히 내다 보이는 넓은 창을 만든 것이겠지요. 그로인해서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집 안과 집 안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 풍경과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되어 서로를 구경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었지만, 이전 그들에게는 그것조차 생활이 되어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드러난 삶이요, 그 삶 자체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100명중 99명은 성도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한 명만 성경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대부분의 기준은, 성경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이 진실하고, 내 자신의 삶이 사랑이 풍성하면, 교회가 진실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거짓되면 교회는 이기적인 곳이고 거짓된 곳이 됩니다.

전 통일부장관과 중국 대사를 역임하셨던 김하중 목사님(예전에는 장로님이셨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대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 그리스도인 내부에 있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었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소명’ (calling) 이라고 부릅니다. 그 때에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convicting of sin), 우리는 죄를 회개 (repentance)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회심’ (con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중생 (regeneration)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며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생 (spiritual new birth)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아기 (spiritual baby)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유전적 질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여러 가지 병원체들과 거친 환경 등 건강을 위협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처럼,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영적인 적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육신적인 신생아들이 병원체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영적인 신생아들 역시 영적인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영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과 전쟁 (spiritual warfare)을 수행해 가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때로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승리와 패배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우리는 어느덧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록 우리의 패배는 줄어들고, 승리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며 (벧전 5:8)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마 24:24).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합니다 (요10: 10).

둘째, 사망의 권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를 불러 일으키는 세력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

든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 2:15).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원리상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긴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 당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요일 5:19)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아래 있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치관들에는 자기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기중심주의 (ego-centrism),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mammonism), 성과 마약과 도박을 통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hedonism, epicureanism), 명예를 추구하는 인기주의 (populism), 무제한적인 권력에 대한 추구 (infinite pursuit of power)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atheism)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복음진리를 왜곡하는 여러 종류의 거짓 선생 (false teachers)들과 이단자 (heresies) 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모든 적들은 우리 외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적들의 수가 엄청나고 그 힘이 강력하더라도, 이 대적자들은 여전히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죄와 죄

성이 잔존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은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직 완전히 영화 (glorification)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장 중에 있고 성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미숙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잔존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저주와 오염 아래 있으며, 죄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으며,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몸이 남아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 역시 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재적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죄와 죄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잔존하는 죄에 의해 지배되고 영향을 받는 상태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르며, 죄의 소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소욕은 육체 즉 죄성을 거스릅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대결, 싸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결과 싸움과 갈등을 아래와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

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 5:16-18)

베드로 사도 역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문제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죄의 정욕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혹적이라는 데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의 소욕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 24)

결국 승리의 관건은 성령과 성령의 소욕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 (엡 5:18)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입고 (엡 6: 10), 성령의 검인 말씀 (엡 6:17)으로 죄와 죄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령을 택하고, 성령의 소욕을 택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성욱 박사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목티슈  
 목티슈  
 목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라 1:1-6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다리오 왕 이년 팔월에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나 여호와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4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5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백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시고 기쁨 부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가라입니다.

### 1.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라 선지자는 다리오 왕 이년 팔월, 예수님이 오시기전 520년 전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여 70년간 죄 값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도록 계획된 것을 하나님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목이 굳고 마음이 굳었습니다. 강박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저도 43년이라는 세월동안 성은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도들이 되게 하려고 애타게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기진맥진해져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뱃속에 힘을 끌어 올려 진액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그 영혼이 이대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인격을 가진 교인이 많습니다. 교회와서 기도할 때는 참 잘 믿는 척 하지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입만 살아있는 가증된

교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8-9)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책임지십니다.

### 2.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스라엘은 BC 538년에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520년 쯤 되었을 때 스가라는 24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스가라가 엄청난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기에만 관심을 갖고, 성전을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많은 돈을 엄청난게 하나님이 쟁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집만 짓고 자기 재산 늘리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곡식 종자까지 까먹어야 하는 흉년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써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 싫다며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붙들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면 멸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은 오히려 듣기 싫다며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붙였을 때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남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싣듯 두들겨 패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가라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말라기,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였습니다. 모두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때 말라기 3장 7절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성전에 가

서 안식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몸만 성전에 드나들고, 예배만 참석할 뿐이지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배를 참석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 나왔느냐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죄악에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느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 3. 여호와께 순종하라

말라기 3장 7절 하반 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마저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8-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십일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십일조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는 생각뿐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요청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쓰

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목자고, 선한 목자고, 진짜 목사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한 번 시험해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황충은 곡식의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줄기, 잎사귀, 뿌리까지 다 먹어 치우는 황충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황충이지만 너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의 일이 내 일이 되어 황충이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영글기 전에 빠져 못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적, 인격적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내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성직자 미디어 출연의 명암(下)

# 승려 혜민, 과연 무엇을 멈췄고 보았던 것인가?

성직자들 미디어 출연에 관여된 명예욕과 몰욕 불교 무소유, 믿음 한 부분 아닌 핵심 실천 원리 혜민 치부 행각, 그의 깨달음 진정성 의심케 해

◆성직자와 명예: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미디어 출연

승려 혜민 논란은 본인의 전면 활동 중단 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그 와중에도 그는 2008년 승려가 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안거수행을 한 적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지막까지 종교적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하였다.

승려 혜민 논란이 미디어 출연을 생각하는 기독교 교역자들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성직자의 미디어 출연 의도가 대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다는 점을 확증해준 사례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는 성직자가 물질의 소유에 얽매는 삶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준 사례로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성직자의 미디어 출연 의도는 왜 대개 불순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일단 유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종교는 개개인이나 사회적 명성과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질타하고 죄악시한다. 세부적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각 종교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명성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초월의 도(道)를 따르는 데 있어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오로지 유교만이 원칙적으로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는 일을 수긍하는 현세주의적 입장을 고수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으로서 사는 데 커다란 장애물 역할을 한다.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생활 전반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학습한다. 유교의 가르침들이 모든 종교 사상과 믿음에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어떠한 종교를 갖게 되더라도 '유교화된' 믿음을 탈피하지 못한다. 소위 종교들의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제국 시절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역사학자 호머 훌버트(Homer B. Hulbert)는 그의 저서 <대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에서 한국인들의 유교와 불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유교가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결여되어 있는 반면, 불교는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명목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교든 불교든 자신의 한 부분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진술은 유교의 과도한 현세주의, 명예추구 성격과 불교의 심오한 형이상학적 성격이 상충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내부에는 이 둘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 중에서 온전한 불교도가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관찰한 것이다.

유교의 가르침도 나름의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사상적 깊이를 갖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다른 종교를 믿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유교 사상의 현세주의적 성격은 대부분의 고등종교가 가르치는 믿음과 크게 상충된다.

승려 혜민이 몸담은 선불교는 불성을 깨닫는 것, 만물의 공허함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오욕(五慾)을 지목하는데, 그 중에는 명백히 명예욕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 역시 순전한 신앙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로 명예욕을 지목하며, '사람의 영광(요 5:44, 12:43)'을 추구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결국 유교적 심성에 깊이 물든 한국인은 각기 믿고 있는 종교들에서 가르치는 초월을 향한 삶을 살기 어려운 태생적 약점을 갖는 셈이다. 한국인이 참된 종교인이 되려면 초월을 지향하는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보다 훨씬 더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 혜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에서 성직자가 미디어 출연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직자와 소유: 경제적 이익 추구를 돕는 미디어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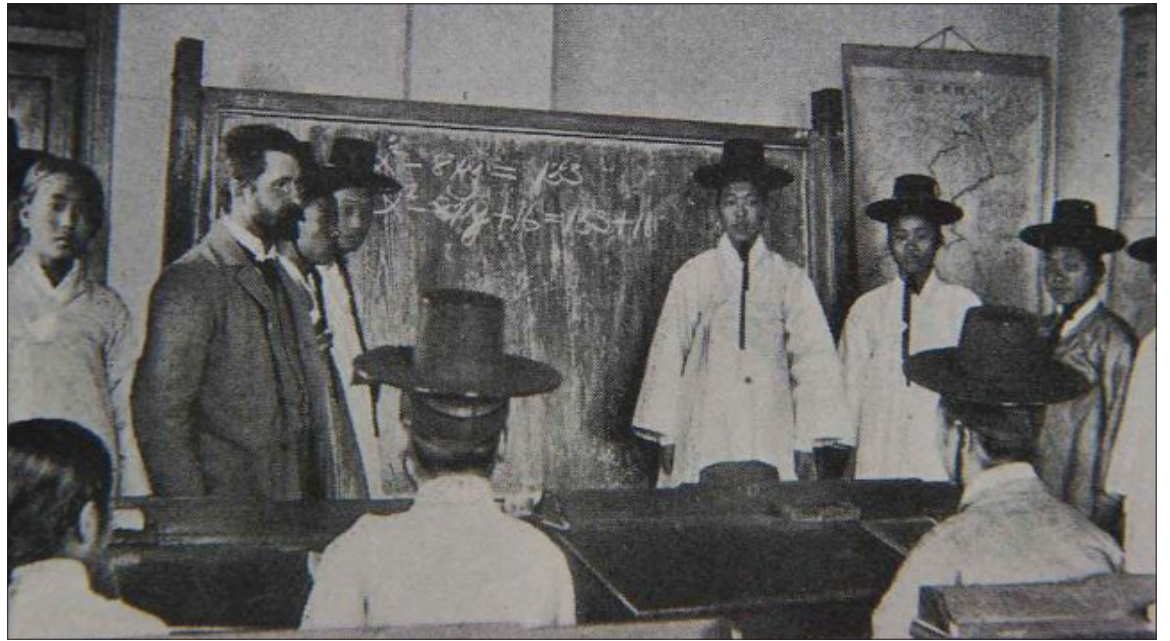
성직자가 미디어 출연에 집착하는 데는 명예욕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욕 못지않게 몰욕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사회적 명성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요즘처럼 세간에서의 인지도가 즉각적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뉴미디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승려 혜민의 사업 행적을 보면, 자신의 명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데 전심을 다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법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이런 행적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종교단체들도 인간이 모이는 집단인 이상 각각의 종교적 믿음을 보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재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련의 사업활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종교단체의 재화 소유나 사업활동이 문제시되는 때는 대개 획득한 재화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들이다. 승려 혜민의 경



과거 조선에서 강의하는 호머 훌버트 선교사. 조선 독립을 지원하는 활동 때문에 일제에 의해 입국금지를 당했다. 한국인의 심성과 종교성, 특히 유교와 불교와 무속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시도했다.

우는 재화의 사용처가 부적절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저술과 미디어 활동, 그리고 사업으로 얻은 재화를 불교의 깨달음 전파나 불교 신도들의 복지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치와 치부(致富)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대중의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경우 몰욕에 잠식되는 일은 경계하지만, 물질의 풍성함 역시 신의 축복의 일환이라고 믿는다. 반면 기독교와 불교의 경우 몰욕을 경계할 뿐 아니라 과도한 소유 자체도 경계한다.

기독교에서 재화의 소유는 원칙적으로 생활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수단,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불교에서는 재화의 소유에 대한 경계심이 기독교보다도 더하다. 불교에서 물질의 소유는 석가여래의 깨달음과 상극을 이루는 개념이다.

석가의 가르침 전반은 기본적으로 공허(空虛)의 존재론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래서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即是空空即是色)”, 현상적 존재는 곧 공허함이고, 공허함은 곧 현상적 존재라는 깨달음을 추구한다.

불교적 실재(實在) 이해는 현상적 존재와 실재적 공(空)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역설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 근원적인 차원이 있다면 현상보다는 공이다.

공의 지평에서는 모든 것이 비워져 있어, 서로 분별 없는 하나의 일체가 된다. 이 무한한 일체로서의 공이 우리 삶의 현상적 실재와 하나된 채 그것의 기원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교는 조화와 자비를 중시한다. 또한 공허함으로 차별이 없는 실재를 망각하고 현상적 개별자들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을 경계한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 집착은 일단 공의 실재에 맞게 비움을 체득하며 살아야 할 불교적 실천에도 맞지 않고, 인식적 차원에서는 현상적 개별

자에 대한 대상화, 집착이 되기 때문에 진리 자각에도 장애물이 된다. 이런 이유로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무소유의 체득, 무소유의 실천을 강조한다.

무소유가 믿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핵심적인 실천 원리를 이룬다. 한국은 유교와 함께 오랜 세월 불교를 정신문화의 한 기둥으로 삼아온 나라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인은 불교가 추구하는 초월과 깨달음의 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그런 한국인들 입장에서, 승려 혜민의 치부 행각은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가 과연 명예욕이나 몰욕을 '멈춘' 적이 있는지, 그에게 과연 '보이는 것'이 있었는지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상충되는 행적을 보인 성직자가 종파의 얼굴로 활동해온 까닭에,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 불교계 전반은 당분간 대중의 실망어린 눈총 혹은 조롱섞인 비난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실천 없이 명예와 부를 좇았던 세속화된 한 성직자 때문에 그 믿음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런 상황은, 기독교계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미디어를 통해 성직자의 신앙과

삶을 내세운다는 것은 대단한 수준의 실천과 용기가 필요한 일일 뿐더러, 대부분 그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기도 하다.

미디어는 그 속성상 대중이 원하는 이상적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꾸며진 이미지는 얼마간 유효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행적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마련인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이렇게 꾸며진 이미지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해당 성직자의 삶의 본모습은 신상털기나 온라인-모바일 상의 소문 등에 의해 곧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성직자 미디어 출연의 가장 특징적인 명암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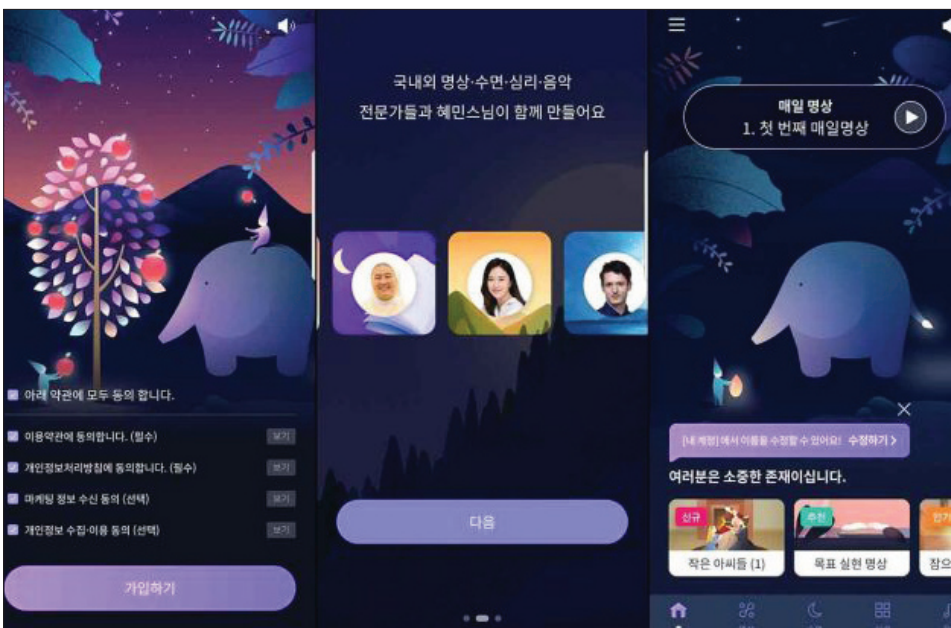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기독교 교역자들의 미디어 출연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절제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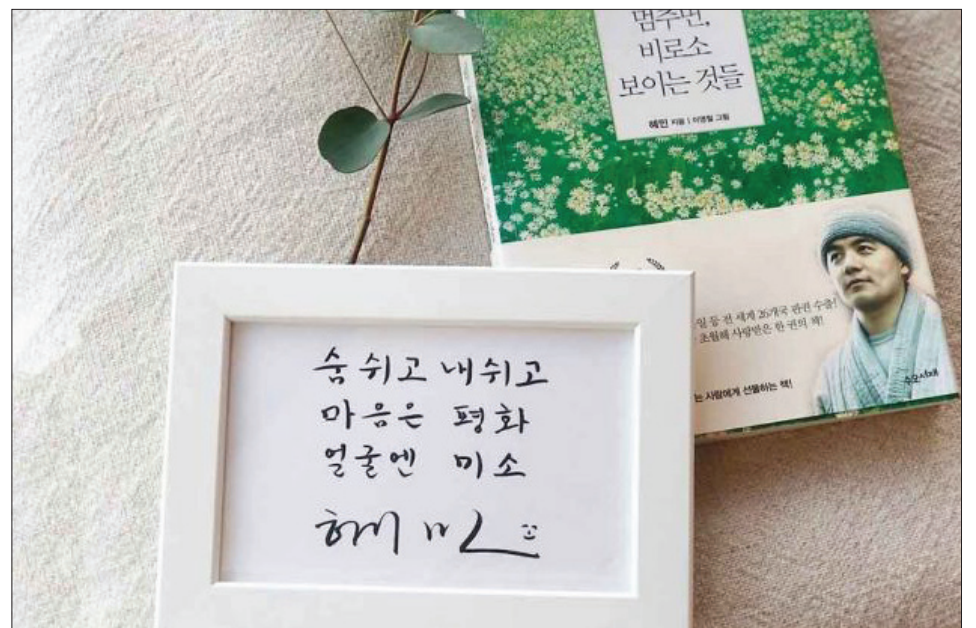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수덕사에서 좌선중인 승려들.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좌선은 공(空)의 실재를 체득하는 방법으로서, 영감과 무한의 비움에 대한 자각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대표한다. ©수덕사



승려 혜민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명상앱 <코끼리>, 사업적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승려 혜민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서의 가르침과 실제 삶의 커다란 괴리 때문에 그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이 크게 증폭되었다. ©수오서재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리처치(Re-Church)

코로나19 이후에도 '오고 싶은 교회' 만들려면



리스토어 황지영 인플루엔셜 | 288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오프라인 경험을 만드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애플스토어, 구찌가든, 베스트바이, 젠틀몬스터, 아모레성수... 글로벌 리테일 전문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황지영 교수가 분석한 독보적인 '오프라인 베이스' 기업의 8가지 진화 전략

지금 시대는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어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WC(With Corona) 시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를 반강제적인 언택트 시대로 급속히 몰아넣었다. 온라인으로 이동을 주저하던 50~60대 이상 소비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일명 '5060 엄지족'이 급증했다.

이런 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배송을 직접 이용하면서 한 번 편의성을 경험하고 나면 해당 인원이 사라져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오프라인 중심의 자영업자 매출은 급감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들도 파산 신청을 하거나 매장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19년 사무용품 매장의 약 50%, 가전제품 매장의 28%, 스포츠 용품 매장의 27%, 의류 매장의 20%가 이미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리테일이 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황지영 교수다.

황지영 교수는 <리:스토어>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채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자는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소로 인해 오프라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다.

첫째, 오프라인 매장이 감소하고 고전을 겪고 있지만, 오프라인 리테일에 여전히 중요한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품 구매의 주 채널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매장의 역할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에서 오프라인은 인공 지능 알고리즘으로 최저가격을 책정하는 온라인을 이기기 힘들다. 코로나19는 언택트로의 이동을 가속화했고, 온·오프라인의 역할이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품 판매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아날로그적 경험이나 쇼룸 등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소통의 채널로 활용

되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 리테일의 축소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마지막 전제는 과거의 성공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변했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저자는 이런 전제들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살 수 있는 ‘리:스토어’ 전략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리:스토어’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치 중심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접근을 의미한다.

곧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매장’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요인, 즉 그 매장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리:스토어>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리:스토어’를 위한 8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테일 테라피(Retail therapy)다. 오프라인 매장은 일상에서의 일탈을 만끽하며 치유와 휴식,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만족감을 높여야 한다.

둘째, 유쾌한 리테일(Retailtainment)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기존 콘셉트를 살짝 비틀어 재미와 영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전략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의외성을 제공할 것인가’다. 고객의 마음에 ‘?’와 ‘!’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관건이다.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콘텐츠건 신선함을 전달할 만한 새로운 요소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야 한다.

셋째, 리테일 랩(Retail lab)다.

오프라인 매장은 실험적인 ‘신선함’으로 고객의 시간을 점령해야 한다. 리테일 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테일 랩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넷째, 공간 재창조(Reinventing space)다.

오프라인 매장은 인더스트리얼 스타일로 트렌드를 리드해야 한다. 미국 대공황 당시 버려지거나 방치된 건물들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예술가들이 작업실로 이용하면서 철근이나 벽돌 같은 자재의 느낌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에서 가능할 만한 방향은 예술 감각과 콘텐츠를 강화한 인더스트리얼이다.

다섯째, 진화한 아날로그(Re-analog)다. 오프라인 매장은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매장을 구현해야 한다. 아날로그 감성에 기반한 오프라인 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기대하는 손맛과 복적거품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고객맞춤 서비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피지컬+디지털=피지털(Re-physital)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오프라인 공간이지만, 편의성을 결합해야 한다. 언택트 리테일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에 온라인에서 가능한 편의성을 융합해, 온라인의 편의성을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일곱째, 클린 쇼핑(Re-clean)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매장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소비생활의 위생과 청결, 안전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가 급격히 높아졌고, 이 기준은 코로나 이후에도 중요한 이슈로 지속될 것이다.

청결, 위생, 안전을 보장하는 ‘클린 쇼핑’이 이제 뉴노멀 중 하나의 양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객 안심 점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덟 번째는 쿨한 친환경(Re-green)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세련되고 ‘쿨한’ 친환경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은 품질의 우수성을 주메시지로 하고, 친환경을 서브 메시지로 전해야 한다.

친환경 메시지의 바탕에는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 오브제,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세심

한 고객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친환경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을 통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리:스토어>는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이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이 위기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과거 방식의 매장이 위기다.

곧 오프라인 매장이 과거 방식을 버리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화된 매장으로 거듭나면, 오프라인 매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늘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모일 수 없게 되자,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비대면 예배가 다시 대면 예배로 정상화된다 해도, 정상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에 한국교회도 ‘리:처치(Re-church)’를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리:처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차원이 좀 다를 수 있다.

교회가 건물 자체를 ‘리:처치’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콘텐츠는 ‘리:처치’해야 한다. 곧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리: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야 하고, 그 가운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사랑의교회 비대면 예배 모습.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편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알러지, 콧물, 고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수축이 얼음처럼 냉한 분,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옆구리 통증(옆통), 10일 이상 자궁출혈,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우,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몸 전체에 붉은 반점이나 흑자, 자궁암, 자궁내막염

매끼는 속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토 10시~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어)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4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199** +Tax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02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